

濟州島 再生說話考

— 再生樣式과 原初意識을 中心으로 —

崔 榮 希

目	次
I. 序 言	2. 還生
II. 本 論	3. 幻生
1. 復活	III. 結 語

I. 序 言

(1) 研究의 必要性 및 研究方法

口碑文學은 文學의 原初의 形態이며, 歷史의 發展과 함께 口碑文學을 토대로 記錄文學이 생겨났다. 原初의 文學인 口碑文學은 時代에 따라서 再創造되고 발전되기도 했다. 口碑文學은 그 創造와 傳承, 口演과 受容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으므로 民衆文學일 뿐만 아니라 民族文學의 바탕이라고도 할 수 있다.¹⁾

口碑文學 中에서 本稿에서는 神話·傳說·民譚을 통칭하는 說話, 특히 濟州島(이하 '本島'라 칭함) 說話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說話는 여러 보티브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再生說話, 建國說話, 求福說話, 風水說話, 卜術說話 등 여러 가지로 類別할 수 있다. 그러한 여러 가지 說話의 유형 中에서 本稿에서는 本島의 '再生說話'를 대상으로 研究하고자 한다. 물론 지금까지 再生說話와 關세된 研究業績은 적지 않

1) 조봉일,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서울, 1980, pp.14 ~ 15.

으나, 특정 지방을 대상으로 한 研究는 나와 있지 않은 형편이다.

文學의 形象을 통한 再生說話는 民衆意識의 基底에 있는 想像의 發現이기 때문에 그런 意識의 說話文學의 形象力은 문학 세계의 郷土性 내지는 獨自性的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口碑傳承의 文學化를 통한 傳統的 意識構造의 解明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本島에 유포·전래되어 오고 있는 再生說話 속에 전개되어 있는 再生의 樣式을 추출·정리해 보고, 具體的인 再生 모티브의 原初的 意味와 意識을 民俗學的 側面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用語와 概念

本稿의 理解와 展開의 편의를 위하여 몇 가지 用語의 概念을 구성해 두고자 한다.

再生說話는 說話 속에 再生 모티브가 들어 있는 모든 이야기를 통칭한다. 生物學的인 죽음에 依하여 人間의 정신 활동이나 靈魂이 완전히 소멸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世界觀은 어느 民族에게나 存在하여 사람의 現實生活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일상 생활에서 허다한 죽음을 目睹하면서도 不死와 영혼의 불멸을 믿던 원시인들의 觀念은 '죽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再生'을 상정하였던 것이며 많은 說話 속에서 再生의 모티브가 되풀이하여 발견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설화에 나타나는 再生의 양식은 復活·還生·幻生으로 나뉘어지는데, 그에 따른 用語의 概念은 學者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어 있으며, 그 概念上的 한계도 또한 모호하다. 再生의 방식에 따른 用語의 概念 및 使用 例를 보면, 再生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2) 朴桂弘, 再生說話의 再生意識, 「口碑文學」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 1981.12.

「碑文學에 나타난 韓國人的 靈魂觀, 忠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論文集 第VIII卷 第I號, 1981.8.

崔雲植, 再生說話의 研究, 成大碩士學位論文, 1974.

再生說話의 再生樣式, 국어국문학회, 「民俗文學研究」, 서울, 同會, 1981.

나는 것이고, 還生은 내세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蘇生은 죽었다가 곧 살아나는 것이라는 견해³⁾와, 再生은 死者의 復活 蘇生을 뜻하고, 還生은 死者의 靈魂이 전생의 肉身을 떠나 또 다른 肉身에 기탁하여 태어나는 것을 일컫는다는 견해⁴⁾가 있으며, 幻生은 인간이 형상을 바꾸어 태어나는 것과 다른 세계 또는 이승에 還生·再生하는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라는 견해⁵⁾도 있어 用語의 概念이 일치되지 않으며, 사건의 풀이를 보아도 概念上的 限界가 명확하지 않다.

本稿에서는 曹喜雄教授와 崔雲植教授의 概念 規定⁶⁾을 주로 응용하였다. 즉 復活이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나는 것으로서 蘇生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還生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動·植物 혹은 礦物로 轉化하여 그 生命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³⁾ 그리고 幻生은 죽은 사람의 靈魂이 神·神仙·鬼·精靈 등의 神·鬼類로 轉化하여 그 造化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再生은 復活·還生·幻生 등의 수법으로 不死·生命 연장을 꾀하려는 모든 기도를 뜻한다고 하겠다.

本稿는 再生 중에서도 죽음을 전제로 하는 再生만을 다루었고, 人間의 再生에만 국한시켰다.

本稿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자료집을 이용하였으며, 인용시에는 [] 내의 약호로 표시하고자 한다.

1. 金榮敦·玄容駿·玄吉彥, 「濟州說話集成(1)」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說話集成]
2. 秦聖麒, 「南國의 民譚」 螢雪出版社, 1982. 「南國民譚」
3. 秦聖麒, 「南國의 傳説」 教學社, 1982. 「南國傳説」
4. 5. 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口碑文學大系」 9-1, 9-2, 9-3, 同院, 1980. [口碑大系 9-1, 9-2, 9-3].
7. 玄容駿, 「濟州島 神話」, 瑞文文庫 瑞文堂, 1970. [濟州神話]
8. 玄容駿, 「濟州島 傳説」, 瑞文文庫, 瑞文堂, 1977. [濟州傳説]

3) 張德順, 「前掲書」, p.26.

4) 曹喜雄, 韓國說話의 研究, 「韓國文學研究」 제 11 집, 國文學研究會刊, 1969. p.59. p.61. 參照.

5) 朴棧義, 「韓國古代小說史」, 日新社, 1950. pp.48~49.

6) 崔雲植, 再生說話의 再生樣式, 「民俗文學研究」, 정음사, 1981.

本島의 再生說話에 나타난 再生의 樣式을 추출함에 있어 復活은 그 계기를, 還生·幻生은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아울러 그 속에 스며 있는 本島民의 原初意識을 살펴보겠다.

Ⅱ. 本 論

1. 復 活

復活이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나는 것으로서 蘇生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죽었다 살아났다 함은 死者 自身の 肉體가 살아남을 의미한다. 死亡으로부터 부활까지의 시간은 一定하지 않다.

復活에는 靈物·靈藥을 매개로 부활되는 ‘靈物媒介復活’과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저승에 갔다가 육체로 歸還함으로써 부활하는 ‘還魂復活’ 그리고 惡靈의 장난에 의하여 죽었던 사람이 그 귀신이 떠나서 부활한다는 ‘逐鬼復活’ 지극한 孝心에 감동하여 하늘이 죽은 아기를 살려 준다는 ‘感天復活’이 있다.⁷⁾

本島의 再生說話에서는 ‘還魂復活’과 ‘靈物媒介復活’의 예를 찾을 수 있다.

(1) 저승왕의 도움으로

저승왕이 다시 되돌려 보내주어 復活한 이야기는 本島 再生說話에 많이 나타나 있다. 먼저 예를 들면,

김 정승의 외아들이 갑자기 죽어 저승에 갔다. 임라대왕이 저승 문서를 걸다 보니, 아직은 저승에 오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었다. 임라대왕은 김 정승의 외아들을 낭장 이승으로 내보내라고 하명했다. 김 정승의 아들은 이승으로 나오기 위하여 백강아지의 뒤를 따라 연못에 풍덩 빠졌었는데, 곧 저승 열두 문에 당도했다. 그러나 인정(돈)이 없어 저승 문을 빠져나오기가 어려웠다. 매마침 이승에는 눈봉사이면서 술장사를 하여 돈을 돈을 여타 사람에게 뺏긴 함씨 할머니가 있었는데, 함씨 할머니로부터 금전을 가로챈 사람들이 저승에 오게 되자 저승에서는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조리 받아내어 보관해 둔 게 있었다. 그 돈은 함씨 할머니가 저승으로 왔을 때 주기 위한 것이었다. 김 정승 아들은 그 돈을 빌어서 저승 문을 통과할 때 마다 인정을 걸며 삼일 만에 나왔던 것이다. <죽었다 산 사람>⁸⁾

7) 崔雲植, 「前揚書」

8) 「說話集城」, pp.805 ~ 811.

김 정승 외아들은 아직 명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염라대왕이 다시 이승으로 되돌려 보내 주었다. 이렇게 위의 <죽었다 산 사람>에서와 같이 아무리 靈界라 해도 人間世界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엔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과오를 즉시 시정하는 것이 正道임을 가르쳐 준다. 이는 곧 人間들로 하여금 자신의 과오를 숨기지 말고 그러한 과오가 있을 때는 곧 그것을 바로잡아 사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주기를 바라는 뜻이기도 하다.

저승에 갔는데 명이 남았다 하여 살아왔다는 <저승 갔다 온 이야기>⁹⁾ 흙머미의 외아들이 죽었다가 명이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15일만에 살아 나는데 저승에서 나올 때 저승 열두 문에 인정을 걸면서 나왔다는 <죽었다가 살아난 소년>¹⁰⁾ 등 사자의 잘못으로 저승에 끌려 갔다온 이야기는 허다히 많다.

그런데 위에 예를 든 <죽었다 산 사람>에서는 저승에 끌려 갔던 김 정승 외아들이 함씨 할머니의 돈을 꾸어 인정을 쓰고 부활하였고, <죽었다가 살아난 소년>에서는 저승문에 인정을 걸면서 나왔다. 한편 <저승에 다니 온 강씨>에서는 강씨가 저승에 가서 어떤 死靈을 만났는데 삼백 원 인정이 없어서 노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활한 후에 그 아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상과 같은 再生의 계기에서 古代人들이 저승을 이승의 연장으로 思考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靈界라 하더라도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억울하게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주는 인정이 있다. 뿐만 아니라 現實界에서 재물이 중요하듯 靈界에서도 역시 財物이 중요하여 인정을 쓰면 靈魂을 다시 돌려 보내주어 再生케도 하고 노동을 면하게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古代人들이 저승을 이승의 연장으로 想像하였음을 意味한다.

저승에 끌려 갔다가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다시 이승으로 인도되어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거의 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再生說話의 특징¹¹⁾ 이라고

9) 『說話集成』, pp. 995~998.

10) 『口碑大系 9-2』, pp. 123~126.

11) 洪承體, 再生說話의 原初意識研究, 忠南大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83.

하지만 本島 再生說話에서는 그런 例가 잘 보이지 않고 <인간차사 강님>¹²⁾과 <죽었다 산 사람>에서만 보일 뿐이다.

앞장서서 가던 강아지는 행기못가에 달려들어 강님의 모가지를 물고 행기못으로 풍덩 빠지는 것이었다. 강님은 정신이 아찔했다. 마치 꿈을 꾸다가 깨듯이 눈을 번쩍 뜨고 보니, 강님은 바로 이승길에 와 있었다. <인간차사 강님>

<인간차사 강님>에서 보면 강님이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다시 이승으로 인도되어 부활하는데 그 復活이 ‘행기못’이라는 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이 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물이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모든 生命이 물에서 탄생한다는 信仰¹³⁾ 때문일 것이다. 물에서 나오는 것은 우주 창조의 형성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요, 물에 잠기는 것은 형태의 해체에 해당한다. 물의 상징이 죽음과 재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물과의 접촉은 언제나 부활을 가져온다.¹⁴⁾ 再生說話의 대단원이 물에서 내려지고 그 물에서 死者의 肉身在 生命을 회복하는 귀환, 完全한 再生, 새로운 탄생으로의 逆行¹⁵⁾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再生說話의 물은 곧 生命의 源泉이며 再生의 母胎가 된다.

이상과 같이 저승의 염라대왕의 명에 의해 復活한 예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저승에 갔다가 육체로 되돌아오므로써 부활하는 ‘還魂復活’이다.

(2) 靈物·靈藥으로

저승의 염라대왕이 다시 돌려 보내 줘서 復活을 하게 된 例 이외에도 靈物이나 靈藥에 의해 죽은 사람이 復活하기도 한다.

12) 「濟州神話」, p.125.

13) 張德順, 「說話文學概說」, 서울, 二友出版社, 1980, p.154.

14) M. 엘리야데著, 李東夏譯, 「聖과 俗 종교의 본질」, 학민사, 1983, p.100.

15) M. 엘리야데著, 李崧奉譯, 「宗教形態論」, 螢雪出版社, 1979, p.208.

한락동이는 먼저 살꽃을 뿌려 살이 붙게 한 다음, 명꽃으로 명을 잇게 하고 살 아나는 꽃을 뿌리고 버들가지로 세 번을 쓰다듬었다. “어머니, 웬 삼을 오래도록 주무세요?” 한락동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부시시 일어났다.¹⁶⁾

금부채를 내어 놓고 연화못 물을 세 번을 때리니, 못 물이 순식간에 말라 들어갔다. 밀바닥에는 버무왕 아들 삼 형제의 뼈가 살그랑하게 남아 있었다. 염라 대왕은 뼈들을 차레 차레 모아 놓고 금부채로 세 번 때렸다. 「아이고, 봄잠이라 너무 잤읍니다.」 삼 형제가 와들랑이 일어나는 것이었다.¹⁷⁾

살그랑한 뼈를 도리도리 모아놓았다. 뼈 살아나는 꽃, 살 살아나는 꽃, 도환생 꽃을 위에 뿌려 놓고 매죽나무 막대기로 세 번을 후러치니, 정수남이는 냇방석 같은 머리를 박박 긁으며 와들랑이 일어나는 것이었다.¹⁸⁾

이상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살꽃’, ‘명꽃’, ‘살아나는 꽃’, ‘버들가지’, ‘금부채’, ‘뼈 살아나는 꽃’, ‘살 살아나는 꽃’, ‘도환생꽃’, ‘매죽나무 막대기’ 등의 靈物·靈藥을 사용하며 죽은 사람을 살려 낸다. 또한 <이승상 딸과 박정승 아들>¹⁹⁾에서는 죽은 이승상의 딸을 박정승의 아들이 ‘符’와 ‘버드나무’를 이용하여 살려냈으며, <와라진 귀신>²⁰⁾에서는 막내 손녀가 사람이 살아나는 ‘물’로 와라진 귀신에 의해 죽임을 당한 형들을 살려냈다.

여기에 나타난 靈物·靈藥은 일상의 生活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랜 각고와 시련을 겪은 다음에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밟음으로 해서 비로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呪力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렇게 靈物·靈藥의 매개로 부활되는 예들을 ‘靈物媒介復活’이라 한다.

16) 「南國傳説」, p.107.

17) 「濟州神話」, p.133.

18) 「濟州神話」, p.133.

19) 「口碑大系 9-2」, pp.170 ~ 176.

20) 「口碑大系 9-3」, pp.624 ~ 633.

2. 還 生

還生이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動·植物, 혹은 礦物로 轉化하여 그 生命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還生은 크게 人間還生·動物還生·植物還生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²¹⁾

人間還生이란 사람이 죽어서 人間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動物還生이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새·뱀·모기 등의 動物로, 植物還生은 꽃·버섯 등의 植物로, 礦物還生은 바위·구슬 등의 礦物로 바뀌어 그 生命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還生의 모티브는 매우 多樣하며 說話의 還生 모티브라 하더라도 神話·傳說·民譚에 따라 그 빈도가 서로 다르다. 이에 대하여 崔雲植教授가 조사한 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²⁾

※ 還生 motif

환생 설화	人間	動 物	植 物	鑛 物
神 話	有	돼지, 두더지, 파리	연꽃	구슬
傳 說	有	구렁이, 나비, 새, 용, 왕벌, 개, 제비	꽃(연꽃, 봉선화, 복숭아꽃), 靑松, 대나무, 등나무, 모과나무	북두칠성, 바위, 부처
民 譚	有	구렁이, 소, 두더지, 닭, 강아지	백일홍, 밀, 버섯, 참나무	

그런데 本島 再生說話의 還生을 살펴보면 動物還生으로는 새·뱀의 還生이 가장 많았고 植物還生에서는 특별히 두드러진 것이 보이지 않았으며, 鑛

21) 崔雲植, 「前揭書」.

22) 上同

物還生에서는 岩石類가 가장 많았다. 還生은 一回의인 것이 보통이나 死靈의 還生 중에는 還生을 거듭하여 그 환생 motif가 몇 번씩 바뀌는 例도 보인다.

〈임백호의 환생〉²³⁾에서 보면 임백호는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저승에 흐르는 강으로서 마시면 還生할 수 없다는 오탁수(五濁水)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還生이 가능하여 처음엔 뱀으로, 두 번째는 부렁이(瓮소)로 還生하였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죽어서 마침내는 人間으로 환생하게 된다.

이처럼 還生 motif는 多樣할 뿐만 아니라 위의 〈임백호의 환생〉처럼 數回の 환생을 거듭하는 重複還生도 있다. 이러한 還生에 대하여 具體的인 例를 中心으로 그 환생 motif의 原初意識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人間還生

人間還生이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우인데, 本土에서의 例를 보면 〈인동환생〉²⁴⁾과 같이 死靈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거나 〈살아서 제천, 죽어서 성주〉²⁵⁾에서와 같이 死靈이 제 육체로 복귀하고자 하나 육신이 이미 매장이 되어 他人의 肉身을 빌려 다시 살아나 그 生命을 연장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本島 再生說話에서의 人間還生을 보면, 死靈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경우만을 찾아볼 수 있다.

옛날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자식을 낳으려고 할아버지에게 적선해 보자고 했다. 할아버지는 쇠신을 삼아 지나가는 길손들에게 거저 주고, 할머니는 외밭을 갈아 길손들에게 외를 거저 주었다. 삼 년이 넘자 곧 재산이 거덜나기 시작했다. 남은 재산을 정리하여 절간에 몸을 의탁했으나, 할아버지가 얼마 없어 죽어 버렸다. 할머니는 반미치광이가 되었다. 다만 할머니

23) 「口碑大系 9-1」, pp.134 ~ 140.

24) 「口碑大系 7-2」, pp.278 ~ 280.

25) 崔來沃, 「全北民譚」, 螢雪出版社, 1978. p.362.

는 할아버지 이름 ‘고산춘’이나 부르며 다닐 뿐이었다. 이때 중국 대사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고산춘 민요를 듣고 갔다. 중국에서는 태자가 태어났는데, 아주 바보처럼 아무런 울음이나 소리도 하지 않았다. 만조백관들은 태자가 태어났다고 하자, 태자를 한 번 보기를 청했다. 천자는 아기를 안고 대신들 앞에 나타났다. 때마침 천자는 백성들 사이에 불러지는 민요를 듣고자 했다. 조선에 왔던 신하가 고산춘 민요를 들려 주었다. 갑자기 바보스럽던 태자가 천자의 품을 헤쳐나오면서 자기가 고산춘이라고 외쳤다. 고산춘 할머니는 곧 중국으로 불러 갔다. 서로 만나게 된 뒤 할머니는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며 生前의 極樂을 맛보았고, 할아버지는 태자로 환생하여 死後의 극락을 맛보았다. <중국 태자로 환생한 고산춘>²⁶⁾

위의 이야기에서는 선행을 하다가 죽은 할아버지가 중국의 태자로 태어나서 死後의 극락을 맛보았다는 내용으로서 佛敎的 윤회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고 하겠다. 그 밖에 앞에서 예를 들었던 <임백호의 환생>과 <인간차사 강님>²⁷⁾에도 人間還生의 motif가 들어 있다.

(2) 動物還生

가. 새

死靈의 動物還生 중 가장 代表的인 것은 ‘새’라 할 수 있으며 本島 再生說話 중의 動物還生에도 역시 새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사람이 죽어서 그 魂魄이 새로 還生하였다는 俗信은 東洋一帶 뿐만 아니라 世界的으로 널리 퍼져 있고 또 새의 울음 소리가 무엇인가를 象徵하고 있다는 傳說도 汎世界的이다.²⁸⁾ 繼母의 학대를 받고 있는 제 자식을 도와 주기 위하여 죽은 生母의 靈이 새로 化身하여 나타나는 얘기는 재래의 민담에서 엿볼 수 있다. ‘의붓어미 시새움에 죽은 누나는 죽어서 점동새가 되었읍니다’는 소

26) 「說話集成」, pp.130 ~ 136.

27) 「濟州神話」, pp.91 ~ 140.

28)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大出版部, 1970.

길의 시에도 그런 영혼의 化身觀이 투영되어 있다.²⁹⁾ 먼저 새 환생의 몇 例를 살펴 보겠다.

선연국 진좌수에 아들·딸이 있었는데 일곱 살이 되기 전에 진좌수 부부가 죽어 버리고 외가어를 갔는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죽어버려서 외삼촌과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런데 외삼촌은 오누이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서도 오누이를 구박하였다. 구박을 견딜 수 없어 집을 나온 오누이는 어느 날 산에서 제각기 갈라져서 길을 잃어버렸다. 누이는 오라비를 찾아 다니다가 냇골짜기에서 용왕 아 들인 뱀장어 새끼를 구해 주고 용궁으로 들어가서는 용왕에게 오라버니를 찾는 것이 원이라고 하여 개의 몸으로 환생하여 오라버닐 찾으러 돌아다니고, 또한 오빠는 누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산신대왕에 의해 새로 환생하여 그 후부터는 누이를 찾아 매일 운다고 한다. <꿩이광 생이>³⁰⁾

석달 열흘 백일이 지나 방문을 떼고 보니, 서수왕 따님 아기는 새의 몸으로 환생이 되어 있었다. 머리로는 두통새가 나오고 눈으로는 홀그새가 나오고, 코로는 악슴새가 나오고, 입으로는 해말림새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³¹⁾

화순리에 사는 고성목이라는 부자가 산방덕이란 미모의 여인을 첩으로 삼았다. 관아의 관원이 산방덕의 미모를 탐내어 고성목의 기세를 꺾고 산방덕을 차지하려고 어려운 과제를 내었는데도 고성목이 척척 해 내자 관원은 고성목을 잡아 들였다. 이렇게 되어 가자, 산방덕은 자기도 곧 삼혀 가게 될 신세임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산방덕이, 주이주이 산방덕이 네 주이다」라고 말하며 푸드득 날아서 산방굴사로 들어가 버렸다고 한다. <고성목과 산방덕>³²⁾

이상 死者의 靈魂이 새로 還生한 몇 가지 例를 들어 보았는데 그 새는 두통새, 홀그새, 악슴새, 해말림새 등 多樣하다.

새의 특징은 날을 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는 어디나 자유로이 날을 수 있다. 古代人들은 그 날음에서 人間界와 神界, 즉 이승과

29) 金烈圭, 「韓國의 神話」, 일조각, 1983. p.106.

30) 「南國民譚」, pp.45 ~ 49.

31) 「濟州傳說」, p.186.

32) 「濟州傳說」, pp.138 ~ 141.

저승의 來往을 느꼈을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 靈魂이 肉身을 떠나 저 세상으로 날아 간다고 믿었던 古代人들은 새를 靈魂의 憑依體 또는 靈魂의 운반자로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즉 새들은 그 飛翔하는 屬性으로 십사리 神의 심부름꾼이 되거나 天人으로 人間意識의 表象이 될 수 있었다.³³⁾

그러므로 靈魂의 새 환생은 그 死靈으로 하여금 自由로운 空間에서 前生の 意志를 發揚케 하고자 하는 人間心理의 表象이라 할 수 있다. 새로 還生하는 死靈은 前生에 풀지 못한 念願이나 큰 恨을 가지고 죽은 자의 靈魂이다. 그러한 念願이나 恨을 죽어서라도 풀어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새 還生의 根本意圖라 할 수 있다.

나. 뱀

再生說話 中에는 死靈이 뱀類로 還生한 例도 적지 않다. 뱀類라면 龍·구렁이·도마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龍還生은 王族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에서만 찾아볼 수 있고, 平民 中에는 대부분 구렁이로 변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것은 구렁이가 누구나 쉽게 목격할 수 있는 흔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本島의 再生說話에서는 龍으로의 還生은 보이지 않고 구렁이로의 還生만이 보인다. 먼저 구렁이로 還生한 說話의 例를 들어 보겠다.

옛날 삼 형제가 道學을 배우기로 하고 산중으로 올라가 십 년간 정진하였다. 형제들은 서로 함께 合숙을 하였다. 큰 형이 식사당번일 때는 두 동생에게 밥을 많이 남겨주고, 자기는 아주 적게 먹었으며, 둘째는 꼭 고르게 배분했는데 막내는 자기만 많이 먹고 형들은 아주 조금씩 주었다. 도학을 다 배운 뒤 삼 형제는 각자 자기 갈길을 찾아 떠났다. 후에 큰 형과 둘째는 농사를 먹으면서 신선이 되었지만 욕심 많던 막내는 끝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구렁이가 된 채 살아갔다. <구렁이가 된 막내>³⁴⁾

33) 金烈圭, 「前掲書」, p.37.

34) 「說話集成」, pp.154 ~ 163.

김씨는 동생과 전처의 아들 형제, 후처의 아들 하나, 이렇게 삼 형제를 거느리고 살았는데 죽을 때에 전 재산을 후처의 아들에게만 물려주었다. 그리하여 그 벌로 뱀으로 환생하였다. < 무쇠철망 >³⁵⁾

이상에서 소개한 뱀 還生說話는 욕심과 편애에 대한 벌에 의해 뱀으로 還生한 경우이다. 즉 佛敎의 윤회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세에서 쌓은 업에 따라 환생할 때 그에 맞는 동물로 환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뱀은 집념이요, 정복을 상징하며, 冤神들의 좌절된 욕망이 뱀으로 변신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뱀은 정신적 에너지의 형상(Carl G. Jung)이라고 할 점은 이것과 농하며, 蛇神 숭배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³⁶⁾

다. 기 타

動物還生の 환생 motif 중에는 지금까지 살펴 본 새·뱀 외에도 기타의 잡다한 動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빈도 면에서는 희박하였다. 그래서 이들을 통합하여 총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삼 영세를 보내 놓고, 엮라태왕은 소 아홉 마리를 풀어 오도록 했다. 과양생의 부부의 꿩다리 아홉에 각각 소 한 마리씩을 묶게 하고, 牧者를 시켜 사방으로 몰았다. 육체가 아홉 조각으로 찢어져 나갔다. 찢어지다 남은 것은 방아에 넣어 뚫뚫 뺏아서 바람에 날려 버리니, 각다귀·모기가 되어 날아갔다.³⁷⁾

위의 예에서 보면 각다귀·모기로 還生한 과양생의 부부는 살아 있을 때에 흠보다는 惡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며 살았다. 이러한 그들의 죽음에 있어서 還生 때에는 그들의 생전의 행동이 남의 피만 빨아 먹었으니 역시 사람의 피를 빨아 먹으면서 병균 등을 옮겨 사람들에게 피해를

35) 上同. pp.824 ~ 829.

36)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 설화」, 흥성사, 1981, p.63.

37) 「濟州神話」, pp.133 ~ 134.

주는 각다귀·모기로 還生시킴으로써 사람은 이승에서 지은 업보대로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는 佛敎의 윤회사상의 단면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本島 再生說話 중의 動物還生에는 死靈이 해양동물로 환생한 예도 찾아볼 수 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경이광 생이>에서 누이동생이 오빠를 찾기 위하여 바다에도 살 수 있고 육지에도 나올 수 있는 게로 還生하였는가 하면 굼벵이라든가 전복으로 환생한 예도 있다.

임을 끊어 던지니 바다의 솔치가 되고, 손톱·발톱은 끊어 던져 버리니 쇠굽벵·돌굼벵이 되고, …… 향문은 끊어 던져 버리니 대진복·소전복이 되고³⁸⁾

이상에서 게 motif는 육지와 바다에서 모두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솔치·굼벵·전복은 그 형태의 유사성에서 유추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本島民들이 합리적이고 現實的인 사고방식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양동물이 還生 motif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本島가 섬으로서 사방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서 바다와 접할 기회가 많으며, 일상 생활에서 늘 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그 밖에 <은장아기와 작은마통이>³⁹⁾·<가쁜장아기>⁴⁰⁾에서는 막내를 시기하고 미워하던 언니가 지네로 환생했으며 <남선비>에서는 굼벵이로 환생하였고, <천지개벽>·<꽃버랭이>⁴¹⁾에서는 팔벌레로 환생했다. 그리고 <성승과 정서>⁴²⁾에서는 소로 환생하였으며 <사람이 돼지로 환생한 이야기>⁴³⁾는 고기 장수의 부모가 이승에서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돼지로 환생한 경우의 이야기이다.

38) 「濟州神話」, p.208.

39) 「說話集成」, pp.214 ~ 220.

40) 「濟州神話」, pp.77 ~ 90.

41) 「南國民譚」, pp.44 ~ 45.

42) 「說話集成」, pp.304 ~ 313.

43) 「口碑大系 9-3」, pp.700 ~ 703.

(3) 植物還生

人間的 生命이 어떤 奸計에 의하여 자기의 命을 다하기 전에 잘려졌을 때, 그 生命은, 植物의 形態로 피난하는 例가 많다.⁴⁴⁾ 우리 나라의 전설에서도 보면 억울하게 죽은 여인들은 대개 새가 되거나 꽃이 된다고 한다.⁴⁵⁾ 死靈이 꽃으로 환생하는 것은 꽃이 지니는 再生力과 生殖力 때문일 것이다. 꽃은 피었다 지고 졌다 다시 피는 再生을 반복하면서 種을 번식해 나간다. 여기서 꽃은 이른바 「靈魂의 嬰兒」, 또는 嬰兒나 꽃이나 꿈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사람의 生殖器管이며 男性의 機能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⁴⁶⁾

本島의 再生說話 中에서는 植物還生의 例를 그리 쉽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例를 들면서 살펴보겠다.

그 여자는 삼 형제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끓는 기름을 그들의 귀에다 부어 넣었다. 그리고, 때마침 동냥 온 거지에게 송장을 치우도록 하였다. 응분의 보수를 받은 거지는 삼 형제의 시체를 지하못에 갖다 버렸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과잉선이 언못에 물을 길러 갔을 때였다. 세 송이의 예쁜 연꽃이 피어 있으므로, 담이 나서 꺾어 왔다.⁴⁷⁾

위의 例에서 死靈이 꽃 중에서도 연꽃으로 還生한 것은 아무래도 불교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꽃으로 환생되는 이유는 蓮臺 위에 부처님이 正座해 있고, 佛敎道場을 蓮花道場이라 하는 것과 같은 佛敎와 蓮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일 것이다.

꽃으로의 還生 외에 나무—산호수로의 還生도 보인다.

마마신이 마야병정들을 몰고 쳐들어 오자 사람들은 마을에서 가장 심수일을 잘

44) M. 엘리아데 著, 李恩奉 譯, 「前揭書」 p.349.

45) 張德順, 「前揭書」, p.265.

46) 黃洪江, 「韓國敎事文學研究」 서울, 國文學出版部, 1977. p.430.

47) 「南國傳說」, p.41.

하는 상군 해녀에게 마을 사람들을 용궁으로 피신시켜 줄 것을 용왕님께 간청하도록 부탁했다. 상군 해녀는 힘든 고난 끝에 마침내 용궁에 가서 용왕 앞에 엎드려 땅 위 사람들의 고난을 호소하였다. 용왕은 곧 바닷가 바위신령에게 많은 군사를 보내어 마마신을 없애도록 명을 내리었다. 바위군대들과 마마병정들의 싸움이 계속되었다. 이 때 바닷가에는 용궁에 간 해녀가 하나의 산호수로 굳어져 떠밀려 올라왔다. 그 산호수를 보자마자 그의 요술주머니 속의 병정들은 모두 죽어 버리고 마마신은 훨훨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 산호수와 마마신 >⁴⁸⁾

나무란 모든 죽음과 삶의 기능, 즉 생명의 나무,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로서의 나무의 像을 포함한다. 나무의 강인한 生命力과 茂盛한 번식력 그리고 겨울에 말랐다가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再生力에서 고대인들은 무한한 神秘와 영원 불멸의 생명력을 느꼈을 것이며 그래서 나무로의 還生이 나타났을 것이다.

本島에서는 육지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아닌 바다의 나무 산호수로의 還生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 역시 죽은 사람이 해녀이고 또 죽은 장소가 바다—용궁이라는 데에서 비롯된 발상일 것이다.

산호수 외에 < 남선비 >에서는 해조류인 ‘괘’로의 환생도 보인다. 이 밖에 < 은장아기와 작은 마통이 >와 < 가문장아기 >에서는 버섯으로의 환생도 보인다.

死靈의 植物還生은 永遠한 生死를 반복하는 植物의 再生力과 광활한 창공으로 뻗어 나가는 繁殖力·豊饒性을 原初意識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원히 滅하지 않고자 하는, 또는 靈魂의 영원불멸을 믿었던 古代人들의 意識이 植物還生說話를 發生, 傳承케 하였다.

(4) 植物還生

死靈이 生命體가 아닌 無生物體로 환생한 예도 있다. 無生物體의 還生의 거의 대부분이 岩石으로 還生한 例이다.

48) 「南國傳説」, pp.128 ~ 132.

미녀 山房德이 高僧과 살고 있는데, 그 곳의 주관이 산방의 미모를 탐하여 산방덕의 남편에게 죄명을 씌워 재산을 몰수하고 여인을 뺏으려 하였다. 이를 안 산방덕은 그 산의 동굴에 들어가 바위가 되었는데 지금도 그 동굴 속에서 샘이 솟아나고 있어 사람들은 그 샘물을 산방덕의 눈물이라고 한다. 山房德은 뒤에 山神이 되었다. <山房德>⁴⁹⁾

위의 例에서 보면 주위 사람의 횡포 때문에 한이 맺혀서 바위가 되었다. 그리고 <장자못>⁵⁰⁾에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어겼기 때문에 망부석으로 변했으며, <五百將軍>⁵¹⁾과 <설문대할망>⁵²⁾에서는 아들들이 자신들의 불효에 한이 맺혀 바위가 되었다.

특히 <山房德>에서 여인이 동굴에 들어간 것은 原鄉(motherland) 에로의 回歸을 의미한다. 동굴은 최초의 집이며 동시에 최후의 집이기도 하다. 그것은 여성의 이미지, 죽음의 이미지로도 된다.⁵³⁾ 이러한 回歸을 통하여 바위가 된 것은 죽음을 통한 永生으로의 귀환을 의미한다. 즉 古代人들은 죽음을 영원한 종말로 보지 않고 再生의 한 단계로 믿는 再生信仰을 지니고 있었다.

돌은 권능, 견고함, 영속성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돌은 존재하며, 항상 그 자신으로 머물러 있고,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위로 대표되는 鑛物還生은 그 광물이 지니는 永久不變性 때문에 나타난 再生樣式이라 할 수 있다. 無限히 변함 없는 생명력을 지니고자 하는 것은 人間의 本能이다. 그러한 人間本能이 死者의 영혼을 영원히 변치 않는 鑛物로 환생케 하는 설화를 발생시켰을 것이다.

3. 幻 生

幻生이란 죽은 사람의 영혼이 神·神仙·鬼·精靈 등의 神·鬼類로 轉化

49) 「南國傳說」, p.186.

50) 「口碑大系 9-1」, pp.91 ~ 92.

51) 「濟州傳說」, pp.52 ~ 53.

52) 「南國傳說」, pp.22 ~ 23.

53) 黃根江, 「前揭書」, p.380.

하여 그 造化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禮記」에 依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靈이 魂·魄으로 나누어 魂은 하늘에 오르고 魄은 地下로 들어간다 하였다(魂氣天歸 形魄地歸). 그런데 一般的으로는 평안히 살다 考終命한 靈은 昇天하여 神이 되지만 平生에 미련이 많은 靈은 昇天을 하지 못하고 鬼가 되어 그가 살던 집 주위를 떠돌아 다니며 후손을 감시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그 원한과 미련을 풀어보고자 하여 사람들에게 심한 재해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성산읍 신평리와 표선면 성읍리 사이에는 ‘꿈은 소’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 그 연못에서는 밤마다 빨래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인근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에서 빨래하다 원통하게 죽어 간 처녀 귀신의 조화라 믿어 그 곳을 금기시해 왔다. 어느 해 총각 도부장사가 꿈은 소 옆을 지나다 처녀귀신에게 복덜미를 잡혀 물속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빨래 소리가 멎고 말았다. <꿈은 소>⁵⁴⁾

중국의 태자가 병이 들었다.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자, 어느 신하의 천거로 제주도의 문곡성이 중국에 불러가게 되었다. 문곡성은 융숭한 대접을 받았지만 마음은 불안하였다. 점괘를 뽑으니 “子斬父頭하니 白雪이 紛紛하다”라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중국 임금은 대단히 노하여서 당장 죽이도록 하였다. 이때 어느 나이 많은 신하가 문곡성에게 임금이 모시는 사당에 있는 위패를 톱으로 잘라낸 적이 있었다고 귀뜸해 주었다. 바로 문곡성은 그것이라고 했다.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빌게 했다. 다 죽어가던 태자가 원기를 차츰 회복했고, 곧 완쾌되었다. 이에 문곡성은 谷城 현감의 벼슬을 받았다. <문곡성의 점>⁵⁵⁾

위의 <꿈은 소>는 원한을 품은 死靈이 怨鬼로 幻生하여 결국 복수를 하고, 죽음으로써 자신의 원한을 풀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꿈은 소>에 서처럼 처녀가 죽으면 그 원한이 造化를 부린다 하여 특이한 장법으로 그 원혼이 再起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死後婚을 시켜 원혼을 달래 주기도 한다. 원혼을 달래지 않으면 그 가족에게 災厄이 온다고 믿었다.⁵⁶⁾ <문곡성의 점>은 鬼로 轉生한 死靈이 自身에게 정성을 다하지 않은 子孫을 징계한 이야기

54) 「說話集成」, pp.732 ~ 733.

55) 「說話集成」, pp.16 ~ 21.

56) 朴桂弘, 再生說話의 再生意識, 前同, 參照.

다. 이처럼 鬼는 生時의 거처를 中心으로 떠돌면서 子孫들이 자기에 대하여 어떠한 態度를 지니는가를 지켜본다. 그랬다가 온갖 정성으로 자기를 공양하면 자손을 보호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災害를 가져다 준다.

그런 반면에 〈양돈어네 조상〉⁵⁷⁾에서는 조상의 제사를 정성껏 지내니, 그 영혼이 뱀을 갖다 주고, 그 뱀을 모셔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조상의 제사를 잘 받들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경우의 예이다.

이상은 死靈이 鬼로 精靈化된 경우의 이야기들이다. 여기에 사람이 저승왕의 명령에 따라 저승의 꽃감관이 되었다는 이야기⁵⁸⁾ 역시 精靈化로 볼 수 있다.

다음에는 神·神仙으로의 幻生을 보겠다.

먼저 神仙으로 환생한 예로서 〈뱀으로 환생한 박씨〉⁵⁹⁾에서의 김씨와 이씨의 예와 〈구렁이가 된 막내〉에서의 큰 형과 둘째의 예를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神으로의 幻生을 보면,

원당 할머니는 무녀의 딸인데 자신의 춤과 노래에 반한 신평리 강씨 할아버지의 소실로 들어오게 되었다. 강씨 할아버지는 양반 가문 체면 때문에 소실에 게긋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원당 할머니는 어느 날 방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불을 붙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강씨 일가의 어린애들마다 피부병이 번지기 시작했다. 굶을 하니, 원당 할머니의 원혼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후로, 원당 할머니는 이 마을 강씨 일가의 부계와 모계로 이어지면서 봉제 받는 조상신이 되었다. 〈원당할망〉⁶⁰⁾

남선비는 달아날 길을 잃어, 접결에 올라로 내달다가 거기에 걸려 있는 정낭에 목이 걸리어 죽었다. 그래서 槎木之神·정살지신이 되었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변소의 신인 廁道婦人이 된 것이다. …어머니는 조왕할망이 되어 들어서게 하고, 일곱 형제는 각각 자기의 직분을 차지하여 신들이 되었다. 큰 형은 東

57) 「口碑大系 9-2」, pp.241 ~ 246.

58) 「南國傳説」, pp.101 ~ 108.

59) 「說話集成」, pp.824 ~ 829.

60) 「說話集成」, pp.734 ~ 740.

方靑大將軍, 둘째 형은 西方白大將軍, 셋째 형은 南方赤大將軍, 넷째 형은 北方黑大將軍, 다섯째 형은 中央黃大將軍, 여섯째 형은 빛문전으로 들어섰다. 마지막으로 영리한 녹디성인은 일문전이 되어 들어 섰다.⁶¹⁾ <남선비>

위의 예들에서 巫俗神이 되었다는 것의 예를 볼 수 있는데, 이 때의 神은 인간 신앙의 대상이 된다.

本島 再生說話 중에 나타난 幻生の 경우를 보면 神·神仙·精靈 등의 幻生 중에서 精靈化가 가장 많고 神化, 神仙化의 순서로 나타난다. 幻生은 死靈이 後孫에게 어떤 조화를 나타내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幻生觀도 역시 죽음을 再生의 段階로 믿었던 古代人들의 再生信仰에 기초한 것이며 그 幻生觀 때문에 死靈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게 되었다. 여기서 祖上을 숭배하고 그 조상의 保佑를 받고자 하는 祖上崇拜의 信仰이 發生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설화의 再生 양식을 살펴 보았는데 再生의 계기 및 양상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Ⅲ. 結 語

지금까지 本島 再生說話 속에 전개되어 있는 再生의 樣式을 추출·정리해 보고, 再生說話 속에 스며 있는 原初意識를 살펴 보았다.

再生說話에 나타난 再生은 復活·還生·幻生이 있는데, 復活은 그 계기를, 還生·幻生은 그 결과를 중심으로 再生의 樣式을 추출해 보았다.

復活이란 일단 죽었던 者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서 蘇生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復活의 期間은 一定하지 않다.

死靈이 復活할 수 있는 계기는 本島에서는 두 가지가 나타난다. 첫째는 수명이 아직 남아 있는데 저승 사자의 고의나 착오로 영혼이 끌려간 者로서 저승왕이 돌려 보내 준 경우이고, 둘째는 靈物·靈藥에 의한 復活로서 오랜 작고와 시련을 겪은 다음에 얻는 靈物·靈藥에 의해서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게 된다.

61) 「濟州神話」, pp.208 ~ 210.

〈표 1〉 재생신화의 재생 계기 및 양상

	재 생 양 상		사 항 수
	재 생 계 기		
復 話	A. 靈物·靈藥으로		8
	B. 저승왕이 보내 주어서		6
	C. 기 타		1
	소	계	15
還 生		A. 사람으로	4
		B. 動物類	22
		① 새	(6)
		② 구렁이	(5)
		③ 모기	(2)
		④ 각다귀	(2)
		⑤ 돼지	(1)
		⑥ 소	(1)
		⑦ 개	(1)
		⑧ 솔치	(1)
		⑨ 굴뚝이	(1)
		⑩ 굴뚝	(1)
		⑪ 전복	(1)
		C. 植物類	6
		① 꽃	(2)
		② 버섯	(2)
		③ पे	(1)
	④ 산호수	(1)	
	D. 礦物類	6	
	① 바위	(5)	
	② 구슬	(1)	
	소	계	38
幻 生		A. 精靈	22
		B. 神	8
		C. 神仙	2
		소	계
合 計			85

還生은 크게 人間還生, 動物還生, 植物還生, 礦物還生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나타난 빈도로 보면 動物還生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植物還生·礦物還生·人間還生의 순이다.

動物還生으로는 새가 가장 많고 구렁이·모기·각다귀 등이 나타난다. 새로 還生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靈魂이 飛翔한다는 思考와 새가 영혼을 나르는 神의 使者라는 信仰을 바탕으로, 人間의 恨을 죽어서라도 풀어 보고자 하는 人間心理에서 發生한 것이고, 뱀으로의 환생은 좌절된 욕망의 표현임과 동시에 불교의 윤회설에서 말하는 현세에서 쌓은 업에 따른 것이다. 기타 동물로의 환생도 역시 현세에서 쌓은 업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植物還生의 경우는 꽃·버섯·폐·산호수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두드러진 것은 없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動物還生에서 게·술치·곰뽕이·곰뱃·전복 등의 해양 생물이 등장한 것처럼 폐·산호수 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本島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으로서 바다와 접할 기회가 많으며, 일상 생활에서 그러한 해양 생물들을 늘 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이 아닐까 한다.

礦物還生으로는 바위로의 還生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무한히 변함 없는 生命力을 지니고자 하는 人間의 本能에 의해서 견고함과 영속성 즉 영구불변성을 지니는 바위로의 還生이 나타났던 것이다.

幻生이란 죽은 사람의 영혼이 神·神仙·鬼·精靈 등의 神·鬼類로 轉化하여 造化를 나타내는 것이다. 本島 再生說話에는 精靈化가 가장 많고 神化·神仙化의 순서로 나타난다. 幻生은 死靈이 後孫에게 어떤 조화를 나타내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幻生觀은 죽음을 再生의 段階로 믿었던 古代人들의 再生信仰에 기초한 것이며 그 幻生觀 때문에 死靈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게 되었다. 여기서 祖上을 숭배하고 그 조상의 保祐를 받고자 하는 祖上崇拜의 신앙이 발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以上에서 本稿는 再生說話를 모티브별로 구분하여 具體的인 例를 통하여 그것이 갖는 原初的 意味를 고찰해 보았다.

參 考 文 獻

- 金烈圭,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一潮閣, 1971.
- , 「韓國의 神話」, 一潮閣, 1981.
- 朴桂弘, 再生說話의 再生意識, 「口碑文學」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 , 「韓國民俗文學研究」, 螢雪出版社, 1980.
- 徐大錫, 「韓國巫歌의 研究」, 文學思想社, 1980.
- 李相日, 變身說話의 類型分析과 原初思惟, 成大 大東文化研究8, 1971.
-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大出版部, 1980.
- , 共著,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71.
- 全圭泰, 「韓國神話의 原初意識」, 二友出版社, 1980.
- 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產業社, 1979.
- ,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0.
- 曹喜雄, 「韓國說話의 研究」, 國文學研究11集, 서울大學大學院, 1969.
- 崔來沃, 「韓國口碑傳說의 研究」, 一潮閣, 1981.
- 崔雲植, 再生說話의 研究, 成大碩士學位論文, 1974.
- , 再生說話의 再生樣式, 국어국문학회 「民俗文學研究」, 同會, 1981.
- 玄容駿, 「濟州島 巫俗研究」, 集文堂, 1986.
- 가스동 바슬라르著, 李嘉林譯, 「물과 꿈」, 文藝出版社, 1985.
- M. 엘리아데著, 李恩奉譯, 「宗教形態論」, 螢雪出版社, 1979.
- M. 엘리아데著, 李東夏譯, 「聖과 俗 종교의 본질」, 학민사, 1983.